

SK그룹, 화학제품 수출호조 지속

1/4분기 31억달러로 34.8% 증가 ... 화학·에너지에 전보통신 약진

2004년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한 SK그룹 계열사들의 2005년 1/4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5% 가량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들의 1/4분기 수출을 추산한 결과, SK와 SK네트웍스 등 7개 주요 수출 계열사의 총 수출액이 31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3월30일 발표했다.

2004년 1/4분기의 23억달러에 비해 34.8% 증가한 것이다.

SK그룹은 2004년 131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2005년에는 140억 달러 수출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SK는 2004년 10월 중국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석유·화학과 윤활유, 아스팔트 수출을 통해 2010년까지 5조원의 매출 달성목표를 수립한 이래 유통과 판매망 확대를 추진해 왔다.

또 SK네트웍스는 2005년 초 중국 中車集團과 제휴형태로 경정비 사업인 스피드메이트에 진출키로 하는 등 2004년보다 50%가량 수출이 증가했으며, SKC 화학부문은 SINOPEC(중국화공집단)과 폴리우레탄(PU) 사업 진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특히, 2005년 들어 중국과 미국 등지에 정보통신 단말기와 서비스 및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수출해 2005년 모두 5억달러의 해외매출을 달성함으로써 그동안 에너지·화학 분야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그룹 최초의 유럽지역 생산기지인 SK케미칼 폴란드 공장이 5월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등 계열사들의 유럽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3/31>